

萬葉七夕歌의 背後와 世界

金 成 俸*

目 次	
I.	序 論
II.	受容 過程
III.	背 後
IV.	世 界
V.	結 論

I. 序 論

日本 最古의 和歌集인 「萬葉集」에는 中國의 傳來說話인 七夕傳說을 受容해서 133首의 七夕歌가 전해지고 있다. 特定の 主題에 대한 노래로서는 異例의 數이다.

本稿의 主目的은 위와 같이 萬葉人들을 魅惑시킨 七夕歌가 中國으로부터의 직접 受容으로써 비롯된 것이었을까 이러한 疑問點을 糾明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目的은 中國의 七夕傳說을 어떻게 變容 受容해서 享受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受容에 대해서 筆者의 소견으로는 古代 社會 佛教文化의 輸入과 그 轉流만 보더라도 一般적으로 印度에서 中國大陸을 거쳐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다시 日本으로 건너 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한반도에서 仲介 役割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現在 남아 있는 上代 文獻인 「三國史記」(1145年) 및 「三國遺史」(1285年)에서는 七夕에 관한 記錄 및 七夕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계속해서 찾아 보면, 七夕에 대해 文獻上 最初의 記錄은 日本의 萬葉時代가 끝나고 나서 約 550年 以後인 高麗時代 恭愍王 2年(1353年)때

* 人文大學 日語日文學科 (Dept. of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秋七月辛未太白晝見 壬申七夕王與公主祭牽牛織女于內庭(高麗史 卷第38)

와 같이 비로소 찾아 볼 수 있고, 또 한 文人들의七夕에 관한 노래도 高麗時代¹⁾와 朝鮮時代²⁾ 때 비로소 찾아 볼 수 있지만 少數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七夕에 관한 記錄 및七夕歌가 거의 없는 것은, 古代 中國에서는 陰曆으로 重日 명절을 숭상하는 경향이 많았던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나름의 천체 周期에 맞추어 보름달을 상징하는 보름 명절을 숭상하는 경향이 꺾 강했기 때문에七夕을 그다지 重要的 民俗의 行事로 取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古代 中國 歷代 王朝 中에서 唐朝 때七夕行事는 宮廷行事로 대대적으로 하였다.³⁾고 하는데, 그 當時 唐文化圈인 우리의 三國時代(新羅·高句麗·百濟)와 統一新羅時代 때는 없었고 우리나라로부터 文化를 傳受받은 日本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半島에 位置하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戰亂에 의한 文物의 損失로 단지 그 時代의 것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 이다라고 본다. 그것은 비록 文獻은 아니지만 409년에 축조된 평양 부근의 덕흥리 高句麗 古墳壁 畫에는 銀河水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牽牛 뒤에는 개를 데리고 있는 織女가 그려져 있다.⁴⁾는 것에서 볼 때 日本보다 빨리七夕傳說을 享受하고 있었다는 것은 確實하다.

이 방면에 대한 論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七夕에 관한 우리의 上代文獻이 없기 때문에 다소의 無理와 독단적인 推理가 介在될 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可能하고 合理的인 범주에서 推理하고 考證하여 究明해 보려고 한다.

研究 절차에 있어서는, 本稿의 論述을 위해서 우선 萬葉七夕歌의 受容 過程을 알아야 되고, 또 이에 앞서七夕傳說과七夕詩의 發祥地인 中國에 대해서 모르면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萬葉時代에 影響을 미친 것은 初唐까지이었다.⁵⁾고 하니까 受容 過程에서 먼저 좁은 知識이지만 살펴 보자 한다.

그러면 後述을 위한 參考로『萬葉集』의七夕歌 133首를 分類,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人麻呂 및 그 周邊	- 40首
人麻呂歌集(卷10)	- 38首
人麻呂歌(卷15)	- 1首
間人宿稱(卷 9)	- 1首
憶良 및 그 以後	- 31首

1) 이인로의七夕雨, 이제현의七夕, 이곡의七夕小酌 등.
 2) 정철의次廣寒樓韻, 김정희의七夕七律 등.
 3) 中西進, 「萬葉集의比較文學的研究」, 櫻楓社, 1972, p. 905.
 4) 孫仁錄, 「韓國人の 敎育歲時風俗」, 文音社, 1991, p. 339.
 5) 前野直彬編, 「唐詩鑑賞辭典」, 東京堂出版, 1973, p. 36.

山上憶良(卷 8)	-12首
湯原王(卷 8)	- 2首
市原王(卷 8)	- 1首
阿部織麻呂(卷15)	- 1首
遣新羅使某(卷15)	- 2首
大伴家持(卷17~20)	-13首
作者未詳	-62首
藤原房前宅作(卷 9)	- 2首
作者未詳(卷10)	-60首

이 중에서 藤原房前宅作은 憶良의 作으로 보아도 좋다. 여기서 作者가 비교적 確實히 알려져 있는 七夕歌는 人麻呂를 中心으로 하는 그룹과 憶良·家持를 中心으로 하는 그룹이다.

II. 受容 過程

七夕傳說의 根源은 地上下界의 漢水의 이름으로써 天漢의 이름이 비롯되었다.⁶⁾는 것에서 볼 때, 漢水 부근에 있었던 男女 사랑의 傳說이 天上移行을 생각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傳說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成立되었는가를 明確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오래 전에 民間說話로서 存在하여 왔다. 대략 前漢時代(紀元前202~紀元8)에 七夕에 관한 行事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 時代에는 이미 形成되었다고 推測되어진다.⁷⁾ 이와 같은 傳說의 이야기는 晉나라 宗愨(498?~561?)의 「荊楚歲時記」에서

天河之東有織女天帝之子也年年織杼勞役織成雲錦天衣天帝憐其獨處許嫁河西牽牛卽嫁後遂廢織維
天帝怒責令歸河東但使其一年一度相會

와 같이 볼 수 있다. 이러한 傳說을 作品化하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正確하게 말 할 수는 없지만 作品으로서 찾아 보면, 中國에서 最古의 詩集인 「詩經」⁸⁾

惟天有漢 監亦有光 跂彼織女 終日七襄 不成報章 皖彼牽牛 不以服箱

6) 宋哲來, 「鄉歌와 萬葉集의 比較研究」, 乙酉文化社, p. 210.

7) 大久保正, 「萬葉集의 諸相」, 明治書院, 1980, p. 221.

8) 紀元前 12世紀경부터 前 6世紀경까지의 詩 約 3千編을 孔子(前 551~前479)가 整理해서 編集.

라는 詩는 그 根柢에 牽牛와 織女가 서로 思慕하는 苦衷의 想像이 없다면 나올 수 없다.”고 하지만 이 詩는 人民의 괴로움과 人民을 위해 힘써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이른바 牽牛 織女의 이야기와 관계가 없다. 즉 天漢이라든가, 牽牛라든가, 織女라든가, 이름뿐이고 傳說 內容은 분명하지 않다.¹¹⁾ 그러나 南朝(420~589) 梁(502~557)의 時代에 編輯된 「文選」¹²⁾(531) 卷 15의 古詩十九首 中에 有名한

迢迢牽牛星 皎皎河漢女 織織擢素手 札札弄機杼 終日不成章 泣涕零如雨 河漢清且淺 相去復幾許 盈盈一水間 脈脈不得語

라는 詩를 牽牛와 織女의 사랑을 主題로 노래한 初期의 作例로 본다¹²⁾ 이 詩의 成立 年代는 대략 後漢時代(25~220) 紀元100年 무렵 作으로 보지만 「王臺新詠集」¹³⁾(583) 卷1에는 前漢時代(紀元前 206~紀元 24)때 枚乘(?~紀元前 141)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認定한다면 七夕傳說의 初作 時代는 前漢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詩를 읽어 보면 이 詩에는 7月 7日 이라는 것도, 은하수(天漢)를 건너서 만난다는 것도, 또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詩 成立 時期에는 牽牛와 織女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思慕하는 이야기는 成立되었더라도 7月 7日 밤에 은하수에서 만난다는 說話는 아직 成立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여튼 이와 같은 作品을 根幹으로 하는 說話內容도 晉나라 宗懷의 「荊楚歲時記」, 梁나라 吳均(469~500)의 「續齊諧記」, 다시금 「文選」 洛神賦의 李善(?~689)注(658) 등의 記事를 보면 晉代(265~420)¹⁴⁾에서 南北朝(420~581)¹⁵⁾에 걸쳐서 차츰차츰 具體化되어, 初唐(618~711)¹⁶⁾ 무렵까지에는 거의 固定된 說話가 完成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確實하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 본 中國의 七夕說話가 日本에 언제 攄來되어, 그것이 古代 萬葉人들에게는 언제 攄受容이 可能하게 되어져 萬葉七夕歌가 創始되고, 流布되고, 一般化되어 가는 過程을 대략 時代順으로 그 大要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日本에서 가장 오래된 記錄인 「古事記」에서 살펴 보면, 上卷 天若日子 葬送의 段에서 高比賣命가 부른 노래

- 9) 大久保正, 前掲書, p. 221.
- 10) 近藤春雄, 「詩經から陶淵明まで」, 武蔵野書院, 1988, p. 249.
- 11) 「文選」에 七夕詩 收錄된 者: 曹子建(192~232), 陸士衡(261~303), 謝惠連(397~432).
- 12) 中西進, 前掲書, p. 890.
- 13) 「王臺新詠集」에 七夕詩 收錄된 者: 王鑿(280?~322?), 顏延之(385~456), 王僧達(423~458), 沈約(441~512?), 劉縈(451~456), 何遜(499?~518).
- 14) 晉代의 七夕詩 作者: 陸機(261~303).
- 15) 南北朝時代의 七夕詩 作者: 劉孝綽(484~550), 庾肩吾(487~552), 簡文帝(503~551), 庾信(513~581), 江總(518~590), 邢邵(559?~?).
- 16) 初唐時代의 七夕詩 作者: 許敬宗(592~672), 杜審言(648?~708), 宋之問(656~712).

阿米那流夜, 淤登多那婆多能

라는 第1句에서 現在 日本人들이 七夕을 濁音으로 “たなばた”라고 읽는 語句(多那婆多)를 처음 찾아 볼 수 있지만 七夕說話의 投影이라고 認定할만한 痕跡이 없기 때문에 中國 七夕說話의 斷片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다음 「日本書記」 應神14年(285) 2月

百濟王貢縫衣工女. 日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

라는 記錄과 同37年(306) 2月

遣阿知使主·者加使主於吳, 令求縫衣女……吳王, 於是, 與工女吳媛, 弟媛, 吳織, 穴織, 四婦女.

라는 記錄에서 볼 때, 百濟王 또는 吳로부터 縫女, 織女 등이 渡來될 時期에 「はたおり」의 技術과 함께 中國 七夕說話도 들어왔다는 推測도 可能하겠지만 遺憾스럽게도 實證을 얻기가 힘들다.

그런데 「日本書記」의 推古天皇 12年(604) 記錄에 聖德太子(574~622)가 직접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十七條憲法¹⁷⁾은 그 文章이 「文選」 등의 各文集에서 適當한 文章을 골라 뽑아 이것을 그대로 끼워 넣거나 바꿔 말하거나 해서 構成되어져 있다.¹⁸⁾는 것은 十七條憲法 制定 以前에 「文選」이 渡來했다는 것이고 中國의 七夕詩도 알고 있었다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文選」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文選」에 收錄된 七夕詩만 읽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604年 以前에 가령 「文選」 등에 내포된 七夕詩를 통한 七夕說話의 接觸이 있었다라도 中國의 七夕說話는 바로 受容될 수 없고 受容되기까지는 상당한 期間이 必要하다고 본다. 그 까닭은 中國의 七夕說話가 受容되기 위한 基盤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天體나 별(星)에 대한 知識의 蓄積인데, 그 무렵 日本人들은 별에 대한 信仰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日本書記」를 살펴 보면 별이 登場하는 神話는 없고 겨우 登場하는 별의 神인 天津瓊星도 高天原에 있어서 「天の神」에게 最後까지 反逆하는 惡神¹⁹⁾으로 나타나 있다는 點과 그 다음 「萬葉集」의 4500余首 中에서 七夕歌를 제외하면 별에 대한 語彙는 「星離り」, 「船星」, 「夕星」, 「明星」가 각각인데 그것도 한정된 歌人 즉 柿本人麻呂와 깊은 關係가 있는 持統女帝(「星離り」: 卷2·161)와 七夕歌 創始者 柿本人麻呂(「夕星」: 卷2·196, 「船星」: 卷7·1068)와 七夕歌 流布者 山上憶良(「明星, 夕星」: 卷5·904)라는 當時 知識人 세 사람에게만 受容되어져 있고, 또한 이러한 語彙 使用도 星辰

17) 歸化人 史部 등이 만든 것인데 聖德太子作으로 記錄된 것은 「日本書紀」의 造作이다.

18) 和歌森太郎外, 「人物日本の歴史1」, 小學館, 1973, p. 58.

19) 天有惡神, 名曰天津瓊星, (「日本書紀」 卷第2 神代下)

에 대한 關心이 高調되었던 天武朝(672~686) 以後의 일시적인 現象으로 그 以後 日本人의 生活感情에 密着한 和歌의 傳統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點 등에서 보더라도 얼마만큼 별에 대한 信仰의 土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604年以前 推古天皇 10年(602) 10月에 百濟의 僧 觀勒이 來朝하여 曆書, 天文地理書, 遁甲(占星術) 方術(점하는 術)의 책을 獻上하여, 書生 3,4명을 선택하여 觀勒 밑에서 학습하게 하였다²⁰⁾고 하지만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전혀 별에 대한 信仰과 土壤이 없는 그 當時 日本人들에게는 現實의 生活이나 習俗과는 큰 懸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에 關心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七夕說話가 受容되기 위한 基盤인 별(星)에 대한 知識 및 關心은 언제 쯤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그것은 天武朝 무렵부터라고 본다. 그 까닭은 『日本書紀』의 日本 天皇即位前紀 中에서

及壯雄拔神武。能天文遁甲 (『日本書紀』 天武前紀)

와 같이 天皇이 天文에 재능도 있었다 라는 記事는 天武天皇뿐이라는 것과 그리고 『日本書紀』 最初로 天武 4年(675) 1月 1日條에 「陰陽寮」(天文·曆法·氣象觀測의 일을 掌함)의 記事 및 그 해 1月 5日條에 天皇 自身이 宮廷에 「占星臺」(天文을 관찰하고 吉凶을 占하는 시설)라는 관청을 史上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記事를 綜合해 보면, 天文에 才能이 있는 나라의 最高 統治者인 天皇이 天文을 장려하여 宮廷에 占星臺라는 관청까지 設置하니 그 契機로 별에 대한 關心이 없었던 宮廷人들도 차츰차츰 별에 대한 새로운 關心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基盤下에 상당한 漢文 및 中國文學의 敎養을 가진 柿本人麻呂(664?~709?)에 의해 七夕歌(卷 10·2032)가 680年度에 創始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七夕歌 左注에 「此歌一首庚辰年作之」라고 表記되어져 있는 庚辰年을 天武天皇 即位 8年(680)으로 보고 『萬葉集』에서 七夕歌의 最初로 보는 說과 聖武天皇 天平 12年(740)으로 보고 『萬葉集』의 七夕歌 中에 左注에 養老 8年(724)라고 年代를 明確히 記錄되어져 있는 山上憶良의 七夕歌(卷8·1519)를 最初로 보는 說이 오랫동안 對立되어져 왔다. 이 중 後者들이 主張하는 說 中에서, 作者 및 年代를 確實히 알 수 있는 限에서는 憶良의 作이 『萬葉集』에서는 最初이라는 것은 물론 筆者도 동감한다. 그러나 모든 七夕歌의 노래가 憶良 以後의 作이다²¹⁾는 것은 전혀 동감할 수 없고 당연히 前者들의 說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日本 最古 漢詩集인 「懷風藻」에는 七夕歌가 6首 실려 있다. 그 中에서 藤原史(不比等)의 作 33은 年代가 記入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死亡에 대해서는 『續日本紀』의 養老 4年(720) 8月 3日條에 「右大臣二位藤原朝臣 不比等薨じぬ」라고 記錄되어져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七夕歌는 720年度 以前의 作이다

20) 百濟僧觀勒來之。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并遁甲方術之書也。是時，選書生三四人，以傳學習於觀勒矣。(『日本書紀』 卷第22)

21) 土居光知, 「比較文學と萬葉集」, 『萬葉集大成』 第7卷, 平凡社, 1986, p. 256.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憶良 以前에 벌써 存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柿本人麻呂 呂作 中에서 年代가 確實한 것은 689年, 草壁太子的 殯宮 때에 만든 長篇의 挽歌(卷2·168)가 最初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680年度의 作으로 하기에는 좀 빠른 느낌도 든다. 그러나 그의 作品의 表現 基本은 中國文學에 있다. 예를 1首 보던

朝霜の消なば消ぬべく思ひつついかにこの夜を明かしてむかも(卷11·2458)

라는 詩의 表現 背景으로

天地無終極, 人命若朝霜(「曹子建送應氏詩」 「文選」)

와 같이 「文選」 등이 생각되어진다는 點에서 볼 때, 그가 中國의 七夕說話을 熟知하고 있었다는 것은 疑心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言及한 七夕歌(卷10·2032)는 人麻呂歌集 七夕歌群(38首)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歌群은 七夕歌의 初期 受容 段階로, 예를 들

わが戀を夫は知れるを 行く船の過ぎて來べしや言も告げなむ(卷10·1998)

와 같이 七夕語彙(天の川, 牽牛, 織女, 棚機, 年の戀)를 포함하지 않는 作品이 거의 20首(卷10의 1998·1999·2002·2004·2005·2008·2010·2011·2012·2014·2016·2017·2021·2022·2023·2024·2025·2026·2028·2032)이다.

이와 같은 人麻呂 七夕歌群의 下限線은 人麻呂가 死亡했다라고 一般적으로 생각되어지는 和銅2年(709) 무렵으로 본다. 그 後 憶良의 七夕歌가 登場하는 養老8年(704)까지 約 15年間 그 사이에 問人宿稱(卷9·1986)을 認定²²⁾ 하더라도 거의 七夕歌를 볼 수 없다. 그것은 天武朝 變에 대한 關心도 天武天皇 死亡(686)後 계속 永續시키지 못하였고, 그리고 七夕宴이 아직 行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一般化되기까지는 큰 劃期와 긴 時間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劃期로서, 遣唐使의 一員으로서 702년에 入唐한 山上憶良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그가 入唐하였을 때 中國은 七夕宴이 宮廷行事로서 代代적으로 行해되었다. 따라서 그는 거기서 틀림없이 七夕宴을 見聞한 것으로 推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가 日本에 돌아온 것은 確實하지 않지만, 澤瀉久孝²³⁾는 704年 7月 무렵으로 推定한다.

그러나 이러한 見聞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歸國 후 바로 七夕歌가 詠歌될 수는 없었다. 우선 오랫동안 東宮(皇太子) 및 貴族의 私邸를 背景으로 한 文學의 場에서 文人들과의 接觸이 있었기 때

22) 後藤利雄, “七夕歌と柿本人麻呂集”, 「萬葉」 第24號, 萬葉學會, 1943, p. 38.

23) 澤瀉久孝, “山上憶良”, 「萬葉集講座」 第1卷, 春陽堂, 1959, p. 127.

문에 비로소 七夕歌가 誕生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七夕歌는 이와 같은 場所에서 誕生 및 流布가 되었지, 宮廷에서 公的인 行事로서 七夕詠歌가 行하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億良의 七夕歌를 時代順으로 살펴 보면, 『萬葉集』 卷8의

1518 在注

「養老八年七月七日に、令に應ふるなり。」

1519 左注

「神龜元年七月七日の夜に、左大臣の宅のなり。」

1520~1522 左注

「右、天平元年七月七日の夜に、億良、天の川を仰ぎ觀る。一に云はく、帥の家にて作る、といふ。」

1523~1526 左注

「右、天平二年七月八日の夜に、帥の家に集會ふ。」

에서 1518의 養老 8年(724)作은 東宮侍講으로서 首皇子의 嫁에 있었던 時期 首皇子(後에 聖武天皇)의 命令에 의해서 東宮(皇太子宮)의 七夕宴에서, 1519의 神龜 元年(725)作은 左大臣 長屋王의 作寶樓에서 개최된 七夕詩宴에서, 1520~11526의 天平 2年(730)作은 筑前守 赴任中 大宰帥 大伴旅人 邸宅에서 개최된 七夕宴席에서 지어진 것 등에서 給合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七夕歌는 皇族이나 貴族에게 流布된 後에 宮廷의 公的인 行事로서 受容하게 되었다. 이것은 時代적으로 이 以後 『續日本紀』의 聖武天皇 天平6年(734) 7月 7日條

天皇觀相撲戲. 是夕徙御南苑. 命文人賦七夕之詩. 賜祿有差

에서 처음으로 宮廷에서 七夕宴의 記錄을 볼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村山出²⁴⁾·阿蘇瑞枝²⁵⁾ 등은 이 以前에도 『日本書紀』의 持續天皇 5年(691) 7月 7日條에

宴公卿. 仍賜朝服.

와 같이 宴의 記事가 있었다고 主張하지만 七夕詩宴으로 速斷할 수가 없기 때문에 聖武天皇 天平 6年 7月 7日條의 記事를 처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後 大伴家持 時代가 되면 七夕行事는 이제 널리 一般化되어 宮廷이나 貴族의 邸宅에서 뿐만 아니라 民間에서도 行하여졌다고 본다. 그것은 大伴家持作 卷17·3900의 題詞

十年七月七日の夜. 獨り天漢を仰ぎていささか思ひを述ぶる一首

24) 村山出, “七夕歌と億良”, 『國語國文研究』 第50號, 北海道大學國文學會, 1972, p. 33.

25) 阿蘇瑞枝, “柿本人麻呂の作品”, 『萬葉集講座』 第5卷, 有精堂, 1973, p. 256.

와 卷20·4306~4313의 左注

右は、大伴宿禰家持、獨り天漢を仰ぎて作りり。

에서 大伴家持의 七夕歌는 七夕宴에서 七夕歌가 아니고 혼자 七夕 밤에 七夕歌를 創作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Ⅲ. 背 後

橋本達雄는 「人麻呂歌余論」에서 七夕說話는 羅唐連合軍에게 滅亡한 百濟(663)의 歸化人들이 流布시켰다²⁶⁾고 主張한다. 이에 관하여 筆者의 소견은 가령 七夕歌가 天智天皇(662~671) 때 創始가 되었다고 한다면 首肯이 간다. 그 까닭은 七夕歌와 關係가 있는 漢詩文이 이 무렵부터 비로소 制作이 되었고, 그리고 이 漢詩文의 制作 動機는 그들(亡命百濟人들)의 受容으로써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當時 詩賦의 場을 만들어 「懷風藻」卷頭に 日本 最古의 漢詩 2首(侍宴, 述懷)²⁷⁾를 남기고 있는 大友皇子(天智天皇의 長男)의 教育은, 「懷風藻」의 大友皇子傳 記錄에 의하면

立爲皇太子. 廣延學士沙紹明, 塔本春初, 吉太尚, 許率母, 木素貴子等, 以爲賓客.

에서 다섯 사람 즉 天智朝의 亡命渡來人들이 皇太子의 賓客이 되어 學問의 스승으로서 담당하였다²⁸⁾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七夕歌는 이와 같은 時代(亡命渡來人들의 影響下에 漢詩文이 制作되었던 天智天皇 때)에 創始되지 않았고, 大海人皇子가 大友皇子의 新政權을 무너뜨리고 即位한 天武天皇 때, 즉 Ⅱ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漢詩文도 重要하겠지만 天文에 대한 知識 基盤이 있었기 때문에 創始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天武天皇의 天文에 대한 知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선 考察해 보면 앞에서 본 橋本達雄의 論도 그리고 遣唐使 影響說²⁹⁾도 無理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天武天皇의 天文에 대한 才能은 「日本書記」에 의하면

及壯雄拔神武, 能天文遁甲(「日本西紀」天武前紀)

에서 壯年期에 이르러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Ⅱ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604年 때 百濟

26) 橋本達雄, 「萬葉宮廷歌人の研究」, 笠間書院, 1982, p. 312.

27) 大友皇子가 671년에 太政大臣이 되었을 때의 作이다.

28) 北山茂夫, 「柿本人麻呂論」, 岩波書店, 1983, p. 29.

29) 崔光準, “七夕歌: 服部論과 橋本論을 中心으로”, 「韓國日語日文學會」第18輯, 1991, p. 125.

人 觀勒의 影響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天武天皇의 아들 大津皇子 곁에 新羅僧 行心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懷風藻」의 大津皇子傳 記錄에 의하면

時有新羅僧行心。解天文卜筮。

에서 當時 日本人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特殊한 知識인 「天文卜筮」이라는 것을 行心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天武天皇은 이러한 知識을 가지고 있었던 行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 大津皇子에게 學問을 敎授하고 있었던 行心을 물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아, 天武天皇은 新羅僧 行心の 影響을 받아 天文에 대한 知識의 蓄積을 이루어, 앞에서 본 「日本書紀」의 記錄과 같이 壯年에 이르러서 天文에 才能이 있었다고 筆者는 推論한다. 하여튼 天武天皇이 僧侶와 關係가 있었다는 것은 「日本書紀」의 天武天皇 即位前紀 記錄 中에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

天皇勅東宮授鴻業。乃辭讓之日。臣之不幸。元有多病。何能保社稷。願陛下舉天下附皇后。仍立大友皇子。宜爲儲君。臣今日出家。爲陛下欲修功德。天皇聽之。卽曰。出家法服。因以。收私兵器。悉納於司。壬

에서 보면, 東宮(大海人皇子 後에 天武天皇)은 天智 身邊에 있어서 權謀術數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天智天皇의 王位 受諾을 辭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出家한 다라는 놀라운 행위이다. 王族 그것도 現天皇의 동생이고 皇太子인 者가 一切를 버리고 삭발하고 法衣를 입고 佛道에 들어간다는 思考는 僧侶들에게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이어서 Ⅱ章에서 言及한 天文天皇이 만들었다는 占星臺(675)에 대해서 살펴 보면, 그것은 新羅時代의 瞻星臺(632)를 닮은 것이 아니었던가³⁰⁾라는 것과 같이 獨自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래서 筆者는 이것도 新羅僧 行心の 影響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推論한다. 그것은 그가 언제 日本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大津皇子 곁에서 文運을 개척하면서 活動한 時期는 天武朝 무렵이었으니까 그 直前에 들어온 것으로 推測되고, 新羅의 瞻星臺는 이것보다 約 40年前에 築造되었다. 따라서 그가 日本에서 當時 「天文卜筮」이라는 特殊한 知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日本에 올 때는 瞻星臺에 대한 知識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新羅使節의 影響을 받았던 것으로 본다. 그것은, 天武天皇 治世 15年 동안 對外關係를 살펴 보면 唐朝와의 關係(遣唐使와 大唐學問僧의 派遣 및 歸國)는 전혀 없고 단지 新羅와의 使節 交換(「日本書紀」 卷28에 의하면 新羅遣使 8回, 日本遣使 4回) 뿐이기 때문이다.

以上 七夕歌 受容 基盤이 되는 天文에 대하여 살펴 본 바 新羅人의 影響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30) 井上光貞編, 「日本の歴史 2」, 小學館, 1978, p. 29.

다음은 앞에서 言及한 新羅僧 行心이 日本에 미친 影響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新羅僧 行心은 大津皇子가 아주 어릴 때부터 學問을 教授하여

幼年好學. 博覽而能屬文. (『懷風藻』大津皇子傳)

와 같이 文筆에 뛰어나게 해서

詩賦之興, 自大津始也. (『日本書紀』持統天皇 朱鳥 元年 10月)

와 같이 天武·持統朝의 漢文學이 大津皇子에 의해서 再興되도록 했다. 그 結果로, 柿本人麻呂라는 天才가 나왔다.³¹⁾ 그것은 人麻呂의 詩歌

久方の天ゆく月を網にさしわがさしわが大君は蓋にせり (卷3·240)

의 情景은 『懷風藻』에 실려 있는 「遊獵」의 밤을 노래한 大津皇子의

月弓輝谷裏. 雲旌張嶺前.

라는 詩와 서로 잘 맞아 있다³²⁾고 中西進가 指摘하는 것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萬葉集』속의 七夕歌 133首와 그와 同時代의 作品인 漢詩集 『懷風藻』속의 七夕詩 6首. 總計 139首 中에서 『懷風藻』속에 山田三方의 七夕詩

金漢星榆冷. 銀河月桂秋. ……

에서만 볼 수 있는 「銀河」라는 語彙를 韓國·中國·日本에 있어서의 使用法을 調査해서 萬葉時代 七夕歌는 新羅로부터 影響을 받았다는 것을 糾明하고자 한다.

韓國은 序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古代에는 七夕詩가 1首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단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Ⅱ章에서 본 中國 七夕說話에 나오는 「天漢」에 해당되는 語彙는 現在까지 銀河水이다.

中國은 日本의 萬葉時代に 해당되는 時代에 唐詩만 해도 5萬 정도나 되고 詩人만 해도 約 3千은 된다. 따라서 筆者의 知識 不足으로 全部 알 수도 없고, 또한 資料도 全部 구할 수도 없다. 이러한 點에서 一般的으로 널리 알려진 文集 및 詩人들의 詩索引에 依存해서 調査하였기 때문에

31) 阿蘇瑞枝外, 『萬葉集の世界』, 筑摩書房, 1980, p. 13.

32) 中西進, 『日本詩人選2·柿本人麻呂』, 筑摩書房, 1974, p. 24.

斷言하기 힘든 면도 있다. 그러면 우선 中國의 詩가 日本의 萬葉時代に 影響을 미친 것은 거의 初唐(618~711) 詩까지이었다는 點에서 初唐 以前까지 時代順으로 「銀河」라는 語彙를 다음의 資料

- 斯波六郎編, 「文選索引 上·下」 京都中文出版社, 1970.
- 小尾郊一·高志眞夫, 「王臺新泳索引」, 山本書店, 1976.
- 與膳宏編, 「謝靈運詩索引」, 同朋舍, 1981.
- 藤澤隆浩, 「杜審言詩一字索引」, 崑崙書房, 1975.

에서 調査해 본 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 時代에는 「銀河」에 해당되는 語彙는

河漢清且淺(「文選」古詩十九首)
天漢東南傾(「文選」擬古詩十二首)
天河之東有織女……(「荆楚歲時記」)

와 같이 「河漢」, 「天漢」, 「天河」이었다. 그런데 日本의 平安時代(794~1192)에 影響을 주고 있는 盛唐(712~766) 詩人 李白(701~762)의 詩 속에서

疑是銀河落九天(725年)
銀河耿花宮 (734年)
銀河無鷓橋 (757年)
銀河倒挂三石梁(760年)

와 같이 비로소 찾아 볼 수 있고, 이어서 中唐(767~826) 詩人 韓愈(768~824)의 詩 속에서도

絳關銀河曙

와 같이 또 白居易(772~846)의 「白氏文集」 속에서도

設使銀河噴

와 같이 계속 찾아 볼 수 있듯이, 차츰차츰 「天漢」보다 「銀河」가 一般的인 語彙로 使用되기 시작하여 現在는 「天漢」 등의 語彙는 古語가 되어 버렸고 「銀河」를 使用하고 있다.

日本에서 「銀河」라는 語彙는, 古代時代에서는 「懷風藻」(751)에서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回밖에 찾아 볼 수 없고, 그 以後 中古時代에서도 私撰集 「新撰萬葉集」 下卷(913) 秋歌에서만

銀河秋夜照無私

와 같이 1회밖에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日本人들의 語彙가 아닌 것이다. 물론 現在에도 使用되고 있지만 「銀河」에 해당되는 日本人들의 語彙는 古代부터 現在까지 全部 「아마노가와」라고 읽고 단지 表記만 다를 뿐이다. 그것을 보면 古代의 「萬葉集」에서는 「天漢」(45回), 「天河」(12回), 「天原」(2回) 등으로 되어져 있고, 그 以後 中古時代의 「古今和歌集」(905)와 中世時代의 「新古今和歌集」(1201) 등에서는 全部 「天の川」라고 되어져 있다. 이것이 現在 使用되어지고 있는 主된 表記이다.

以上 考察한 內容을 綜合해 보면, 우리나라의 銀河水에 해당되는 語彙가 日本에서는 古代부터 現在까지 「아마노가와」라고 읽는 語彙가 支配的이었다. 따라서 「懷風藻」의 七夕詩에 있는 「銀河」라는 語彙는 그들이 獨創的으로 만든 것은 絶대로 아니다. 그렇다고 中國으로부터 傳來되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中國은 日本에 影響을 주고 있는 初唐詩까지는 使用되지 않았고 日本과 거의 비슷한 時期에 使用되었다는 점에서, 中國으로부터 傳來되었다고 보는 것은 古代社會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中國(唐)과 日本의 中間에 있는 新羅가 「銀河」라는 漢文투의 語彙를 만들어 唐과 日本에 流布시켰다라고 推論한다. 이 事情은, 古代 日本에서 唯一하게 「銀河」라는 語彙를 「懷風藻」에 남겨 두고 있는 山田三方은 「日本書紀」卷30 持統天皇 6年(692) 10月條의 記錄

冬十月壬戌朔壬申, 授山田史御形務廣肆. 前爲沙門, 學問新羅.

에 의하면 「前」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記錄보다 그 以前에 新羅로부터 學問을 배웠다는 것과 中國에서는 李白 무렵 以後 唐朝에만 하더라도 登科한 新羅人이 約 90명에 이르고 있었다³³⁾는 것에서 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은, 山上憶良의 七夕歌의 成立 背景을 통해서 新羅의 影響을 살펴 보자.

憶良의 七夕歌의 登場에 대해서는 Ⅱ章에서 言及한 바가 있지만, 그의 七夕歌는 中國에서 七夕宴의 見聞下에 무엇보다도 首皇子를 中心으로 하는 皇子文化圈 乃至 長屋王詩苑 等に 의해서 形成되어 온 새로운 文學의 場이 있었기 때문에 登場한 것이었다.

皇子文化圈이란 皇子 살롱 文學의 場으로 가장 새로운 思想이나 學問이 要求되고 여기에는 많은 渡來系 知識人이나 僧侶, 文人, 詩人들이 出入하고 있었다³⁴⁾고 하는데 이러한 皇子文化圈 속에서 首皇子의 學問을 支持하는 사람이 養老 5年(721) 正月의 詔勅에 의해서 18명이 뽑혀졌다. 그것을 보면

詔從五位上佐爲王, ……從五位上山田史三方, 從五位下山上臣憶良, ……(國史大系本 「續日本紀」)

33) 池田溫編, 「古代を考ふる唐と日本」, 吉川弘文館, 1992, p. 6.

34) 辰巳正明, 「萬葉集と中國文學」, 笠間書院, 1987, p. 36.

라는 기록에서 山上憶良는 앞에서 살펴 본 新羅人을 背後로 하는 當代 一流의 漢學者인 山田三方와의 接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憶良의 七夕歌(卷8·1511)는 이와 같이 首皇子文化圈에서 山田三方과의 接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山田三方가 七夕詩(『懷風藻』에 1首)를 詠歌하는 것을 보고 그 影響下에 首皇子의 命令에 의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었다.

長屋王³⁵⁾ 詩苑이란 首皇子가 聖武天皇으로 即位(725)한 後 皇子文化圈의 形態를 바꾸어 皇親派의 새로운 文學의 場이 形成되었던 곳이다.³⁶⁾ 이곳에서 많은 文人들이 新羅客들과의 饗宴의 接觸이 있었던 것은 『懷風藻』에서 詩題를 보면,

- 52.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一首(山田三方)
- 60. 同(背奈王行文)
- 62. 初秋於長王宅宴新羅客一首(調古麻呂)
- 63.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一首(刀利直令)
- 65. 同(下毛野虫麻呂)
- 68. 於賣宅宴新羅客一首(長屋王)
- 71.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一首(安倍廣庭)
- 77. 同(百濟和麻呂)
- 79. 同(吉田宜)
- 86. 同(藤原房前)

라는 것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場所에서 憶良의 七夕歌(卷8·1519)는 詠歌되었고, 그리고 그의 七夕歌(卷8·1764, 1765)는 위에서 新羅客과 詩宴의 經驗이 있는 藤原房前 邸宅에서 詠歌되었다.

이상의 論考에서 山上憶良의 七夕歌는 新羅와의 接觸을 排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章의 끝으로, 萬葉人들은 新羅를 통하여 中國의 七夕傳說 및 七夕詩를 間接 受容하였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케 해주는 사실로써 『萬葉集』 卷15의 「遣新羅使歌」(145首)를 들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속에 무엇보다 人麻呂의 七夕歌 中에서 左注에 「右は、柿本朝臣人麻呂の歌なり」라고 明記되어져 있는 노래(卷15·3611)는 1首 밖에 없는데 이 노래가 傳誦古歌로써 收錄되어져 있고, 또한 天平 8年(736) 新羅에 派遣되었다가 이듬해 歸國한 使節 日행이 지은 七夕歌 3首가 收錄되어져 있다는 點에서 알 수 있다.

IV. 世 界

七夕傳說의 牽牛와 織女는 鷲星座의 알타이어(α) 별과, 琴星座의 베가(β) 별을 가리키는 것으로

35) 天武天皇의 孫子.

36) 辰巳正明, 前掲書, p. 40.

원래 銀河水의 동쪽과 서쪽의 득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별은 黃道上的의 운행 때문에……中略……七夕 때면 천장 부근에서 보게 되므로 마치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³⁷⁾ 이와 같은 自然現象을 天文에 익숙하지 않는 萬葉人이라도 發見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두 별의相逢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儼然한 事實로서 否定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七夕 날 牽牛와 織女의相逢은 實際로는 있을 수 없다고 해도 每年 되풀이 되는 現在의 事件으로서 想像할 수 있었다. 즉七夕傳說是 過去의 이야기가 아니고 現在 進行하고 있는 事件이다. 이와 같은 現實性이 萬葉人들을 天上의 로망의 世界로 몰아 세운 큰 契機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萬葉人들은 牽牛와 織女가 天帝로부터 罰을 받아 東과 西로 떨어지는 運命에 이르는 過去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無關心이었고, 두 별의 邂逅의 한 점에만 集中해서 想像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萬葉七夕歌는 中國의七夕傳說 內容 중에서 두 별의 邂逅의 한 점을 제외하고는 變容해서 受容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受容하는 生活이나 習俗의 基盤이 다르기 때문에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萬葉七夕歌의 基本이 되는 用字法은 中國의七夕詩를 그대로 模倣을 많이 하고 있다. 이를테면 萬葉七夕歌 133首 中에서 「天漢」(45回)와 「天河」(12回) 등은 Ⅱ章에서 본 바와 같이 「文選」 등의七夕詩를 그대로 踏襲한 것이고, 또한

天漢霧立ち上るたなばたの雲の衣の飄る袖かも(卷10·2063)

에서 「雲の衣」은 杜審言의 「奉和七夕宴兩儀殿應制詩」 속의 「微步動雲衣」와 許敬宗의 「七夕賦詠成篇詩」 속의 「不惜呈露解雲衣」의 翻案이다. 그리고 萬葉七夕歌 속의 「金風」(卷10·2013)은 「文選」 卷15의 張景陽(?~307)의 雜詩 속의 「金風扇素節」(3)에서 模倣을 한 것이고, 이외에도 「靑波白雲」(卷8·1520), 「風雲」(卷8·1521) 등은 全部 中國詩의 常套적인 表現을 模倣한 것이다.

그러면, 萬葉人들은 中國의七夕傳說 및七夕詩를 어떻게 變容 受容해서 享受하였는가를 살펴 보자.

첫째, 中國의七夕傳說是 牽牛와 織女의 隔離는 Ⅱ章에서 본 바와 같이 天帝의 노여움에 의해서 인데 반해서 「萬葉集」에서는 冒頭 表現이

天地と別れし時ゆ……(卷10·2005, 2092)

天地の初めの時ゆ……(卷10·2089)

八千戈の神の御世より……(卷10·2002)

天照らす神の御代より……(卷18·4125)

와 같이 天地開闢 以來 혹은 神의 御代 때부터 約束이다라는 表現과 또한 中國七夕傳說의 「天漢」를 記紀神話에 보이는 高天原의 이름인 「安の河」(卷10의 2033, 卷18의 4125·4127)라는 表現은

37) 李殷成, 「韓國의 冊曆」 下, 電波科學社, 1978, p. 133.

中國의 七夕傳說에 日本의 神話를 融合시킨 世界이다.

둘째, 中國의 七夕詩에서는 7月 7日 天漢(銀河水)를 건너는 것은 모두

長夜徒河靈 紫煙凌鳳羽 (簡文帝 「七夕」)

와 같이 織女(河靈) 쪽인데 반해서 萬葉七夕歌는 憶良의 七夕歌(卷5·1527), 家持의 七夕歌(卷17·3900), 作者未詳七夕歌(卷10·2081)를 제외하고는

彦星は嘆かす妻に言だにも告げにぞ來つる見れば苦しみ(卷10·2006)

와 같이 全部 牽牛 쪽이다. 이것은 男子와 女子는 結婚해도 夫婦別居하면서 男便이 아내의 집을 訪問하는 「妻問婚」이란 그 當時(奈良時代)의 習俗을 그대로 天上의 로망(七夕歌傳說)까지 反映시킨 것이다. 따라서 地上과 마찬가지로 織女の 渡河는 許諾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婚姻은 「妻ごめ」, 즉 妻의 집을 만들어 他人이 볼 수 없도록 妻를 杜門不出하게 하여 新婚生活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記錄歌謠 第1의 「八重垣」의 노래,

八雲立つ出雲八重垣妻籠みに八重垣作るその八重垣を

에서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이 當時의 習俗이었다. 그것을 萬葉七夕歌에 反映시켜서

ぬばたまの夜霧隠りて遠けども妹が傳は早く告げこそ(卷10·2008)

白雲の五百重隠りて遠けども夜去らず見む妹が邊は(同·2026)

天の河八十瀬霧らへり彦星の時待つ船は今し漕ぐらし(同·2053)

와 같이 구름(雲)이나 안개(霧)로 意圖적으로 두 별을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婚姻의 特徵은 男便이 아내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男便이 아내의 집을 訪問하더라도 「人言」(他人의 소문), 「人目」(他人의 耳目)에 굉장히 神經을 썼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급적 아내의 집을 訪問하는 것을 抑制하였다. 얼마만큼 萬葉人들은 抑制하고 있었는가 하면

天飛ぶや輕の道は我妹子が里にしあればねもころに見まく欲しけどやまず行かば人目を多みまねく行かば人知りぬべみ……妹は黃葉の過ぎて去にきと玉梓の使の言へば梓弓聲に聞きて……あり得ねば……我妹子が止まず出で見し輕の市にわが立ち聞けば……鳴く鳥の聲も聞えず……
(「萬葉集」 卷2·207)

에서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人目」 때문에 抑制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가 죽었다는 傳喝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남의 耳目 때문에 가 볼 수 없는 心情을 노래하고 있는 것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七夕歌에 採擇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 왜냐하면 牽牛와 織女가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것은 許諾된 것이니까 남모르게 살짝 할 必要도 없고 「人言」, 「人目」를 꺼릴 必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萬葉人들은 中國 七夕傳說을 萬葉時代의 戀人들에게 最大 障害의 하나인 「人言」를 꺼리는 心理 狀態(『萬葉集』에서 約 180首)까지

大空ゆ通ふわれすら汝ゆるに天の川路をなづみてぞ來し(卷10・2001)

八千戈の神の御世より乏り妻人知りにけり繼ぎてし思へば(卷10・2002)

反映시켜서 享受하였던 것이다.

셋째, 中國의 七夕詩에서 織女가 渡河할 때를 보면,

仙車駐七襄 鳳駕出天潢(何遜 「詠七夕」)

龍駕凌霄發(劉謙 「詠牛女」)

紫煙凌鳳羽(簡文帝 「七夕」)

에서 「仙車」, 「鳳駕」, 「鳳羽」 등과 같이 아름다운 車로 威風堂堂하게 「天潢」(銀河水)를 건너는 것에서는 現實 生活로부터 隔絶한 說話의 天上性을 엿볼 수 있지만, 萬葉七夕歌에는 牽牛가

久方の天の川瀬に船浮けて今夜か君が我許來まさむ(卷8・1519)

天漢安の渡りに船浮けて秋立つ待つと妹に告げこそ(卷10・2000)

天の海に雲の波立ち月の船星の林にこぎ隠る見ゆ(卷7・1068)

天漢夜船を漕ぎて明けぬともあはむと思ふ夜袖かへずあらむ(卷10・2020)

와 같이 「船」, 「月の船」, 「夜船」 등의 배(船), 또는

妹がりとわが行く道の河しあれば附目結ぶと夜そふけにける(卷8・1546)

天漢去年の渡り出うつるへば河瀬を踏むに夜そふけにける(卷10・2018)

와 같이 徒歩로 織女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은 天上의 두 별의 사랑도 地上의 生活 現實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織女도 그것에 어울리게, 앞에서 본 行動的인 中國의 織女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當時 萬葉時代의 女性像, 다시 말해서 萬葉時代의 「妻門い婚」의 結果로 女性은 男便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 悲慘한 存在로 轉落하였기 때문에 男便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것을 恨歎한다든지 男便이 오는 것을 초조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女性의 苦悶하는 모습을

わが夫子にうら戀ひ居れば天漢夜船滂ぐなる梶の音聞ゆ(卷10・2015)
秋風の吹きにし日より天漢瀬に出で立ちて待つと告げこそ(同・2083)

와 같이 反映시킨 것이다.

이상의 論考에서 萬葉人들은 中國의 七夕傳承에 그들의 神話의 世界를 接續한 後, 그들은 天上의 두 별의 사랑도 地上의 生活 現實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思考로 그 當時 地上의 生活習俗인 「妻問い婚」를 그대로 反映시켜서 享受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 結 論

이상의 論考에 의해서 萬葉七夕歌의 背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萬葉七夕歌가 受容되기 위한 基盤인 天文의 知識은 新羅僧 行心 乃至 新羅使節의 影響下에 이루어졌다.

둘째, 萬葉七夕歌와 同時代의 作品인 漢詩集 「懷風藻」의 七夕詩에 나타난 「銀河」라는 語彙를 韓國·中國·日本에 있어서의 使用法을 調査해 본 바, 그 語彙는 그 當時 우리나라의 新羅가 만 들어 流布시켰다.

셋째, 山上憶良의 七夕歌 成立 背景은 新羅와의 接觸을 排除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點 등에서 볼 때, 羅唐連合軍에게 滅亡한 百濟의 歸化人들이 流布시켰다라는 橋本達雄論도 遣唐使 影響說도 타당하지 않고, 萬葉七夕歌의 背後에는 新羅人들이 있었기 때문에 中國의 七夕傳承을 間接으로 受容하여 詠歌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萬葉七夕歌의 世界는 中國의 七夕傳承을 新羅로 통하여 間接 受容하여 그 當時 萬葉時代의 生活習俗인 「妻問い婚」를 그대로 反映시켜서 享受하였다.

參 考 文 獻

- 姜舞鶴, 「韓國歲時風俗記」, 集文堂, 1987.
金思擘, 「日本の 萬葉集」, 民音社, 1983.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7.
孫仁錫, 「韓國人の 教育歲時風俗」, 文音社, 1991.
宋哲來, 「鄉歌와 萬葉集의 比較研究」, 乙酉文化社, 1991.
張壽根, 「韓國의 歲時風俗」, 螢雪出版社, 1989.
崔南善, 「東國歲時記」, 朝鮮光文會, 1920.
伊藤博, 「萬葉集の表現と方法」上, 塙書房, 1975.

- 大久保正, 「萬葉集の諸相」, 明治書院, 1980.
- 尾崎暢殃, 「萬葉集の發想」, 明治書院, 1991.
- 北山茂夫, 「柿本人麻呂論」, 岩波書店, 1983.
- 北山茂夫, 「天武朝」, 中央公論社, 1991.
- 辰巳正明, 「萬葉集と中國文學」, 笠間書院.
- 中西進, 「萬葉集の比較文學研究」, 櫻楓社, 1972.
- 中西進, 「日本詩人選2・柿本人麻呂」, 筑摩書房, 1974.
- 渡瀬昌忠, 「柿本人麻呂研究」, 櫻楓社, 1973.
- 土屋文明, 「萬葉集」, 河出書房, 1963.
- 久松潛一, 「萬葉研究史」, 要書房, 1950.
- 橋本達雄, 「萬葉宮廷歌人の研究」, 笠間書院, 1982.
- 武田祐吉, 「日本古典鑑賞講座」, 角川書店, 1970.
- 杉本行夫, 「懷風藻」, 弘文堂, 1943.
- 川村悅磨, 「七夕傳説」, 甲子社書房, 1936.
- 阪下圭八, 「初期萬葉」, 平凡社, 1978.
- 林屋辰三郎, 「歴史の中の日本と朝鮮」, 講談社, 1981.
- 齋藤忠, 「古代朝鮮文化と日本」, 東京大學出版會, 1981.
- 池田溫編, 「古代を考える唐と日本」, 吉川弘文館, 1992.
- 北海道大學放送教育委員會, 「中國の古典を読む」,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87.
- 前野直彬編, 「唐詩鑑賞辭典」, 東京堂出版, 1973.
- 花房英樹, 「文選」詩騷編 4, 集英社, 1983.
- 守屋美都雄, 「註校 荊楚歲時記」中國民俗の歴史的研究, 帝國書院, 1950.
- 大野林火, 「入門歲時記」, 角川書店, 1980.
- 佐久節, 「漢詩大觀」上, 有明書房, 1971.
- 吉川幸次郎, 「中國詩史」上, 筑摩書房, 1984.

Summary

The back and the world of Love-star song Manyō

Sung-Bong Kim

'Manyōshū' is one of the oldest book of selected songs in Japan and includes one hundred and thirty three pieces of Love-star songs.

Love-star songs that allured Manyō people, I think, were transmitted indirectly by Silla people, not being transmitted directly by Chinese men.

This was proved when the writer investigated such materials as some information of astronomy, how to use letters of 'The Milky ways' and realizational backgrounds of 'Yamauenokura'.

The world of Love-star song Manyō accepted Chinese Love-star legend indirectly through Silla. And it reflected and enjoyed 'Marriage of visiting a wife' as a life custom of those Manyō times.